

「의식주」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

- ① 농축산물(23개), ② 식품·외식·배달(16개) ③ 패션(2개) 등 총 41개 업체

1 세무조사 추진 개요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·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.
-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,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,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.
-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로, 농축산물·가공식품·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(38개)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(3개)가 포함되었다.

<세무조사 대상>

- ①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**농축산물 유통업체** (23개)
- ②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**가공식품·외식 프랜차이즈·배달 플랫폼 업체** (16개)
- ③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**패션 플랫폼 업체** (2개)

2 세부 추진내용

①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(23개)

- 먼저,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,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·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.

계란 생산농가(양계 농장) : 11개

- 계란이 ‘금란’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*를 받은 가운데,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~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*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('26.5.14.),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'26.7.29.)

-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으며,
 -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.
- 다른 업체의 경우 농·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*을 악용해,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톨도 내지 않았다.
 - * 일정 사육두수(닭: 15,000마리) 이하에서 발생한 농·어민의 축산소득은 비과세(소득세법§12)
 -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.

곡물·과일·육류 수입·유통업체 : 12개

- 참깨,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.
- 0%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으며,
 -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였다.
- 참깨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(Tariff Rate Quota; TRQ)*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위장 업체에 분산하여 귀속시켰고,
 - * WTO·FTA 협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
 -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한편,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하였다.

②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·외식 프랜차이즈·배달 업체(16개)

- 둘째로,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가공식품 업체·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.

가공식품 업체 : 12개

-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, 업계 내 독·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포착되었다.

-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,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여 이익을 빼돌렸으며,
 -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.
- 한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나,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였다.
 - 또한,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미수취한 혐의도 확인되었다.

프랜차이즈 가맹본부 : 3개

-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한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.
 - 전국적으로 2,000여 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으며,
 -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의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.
 - 또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, 한 대 당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3대나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,
 -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 및 각종 리베이트를 수취한 후 은닉하고,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히 손금에 산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였다.

배달 플랫폼 : 1개

-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.
- 국민의 일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,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.
-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 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 온 해당 플랫폼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.

③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(2개)

- 끝으로, 경쟁사 대비 우월적인 지위에서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한 일부 패션 플랫폼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.
-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,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 이들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외에도,
 -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,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확인되었으며,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.

3 향후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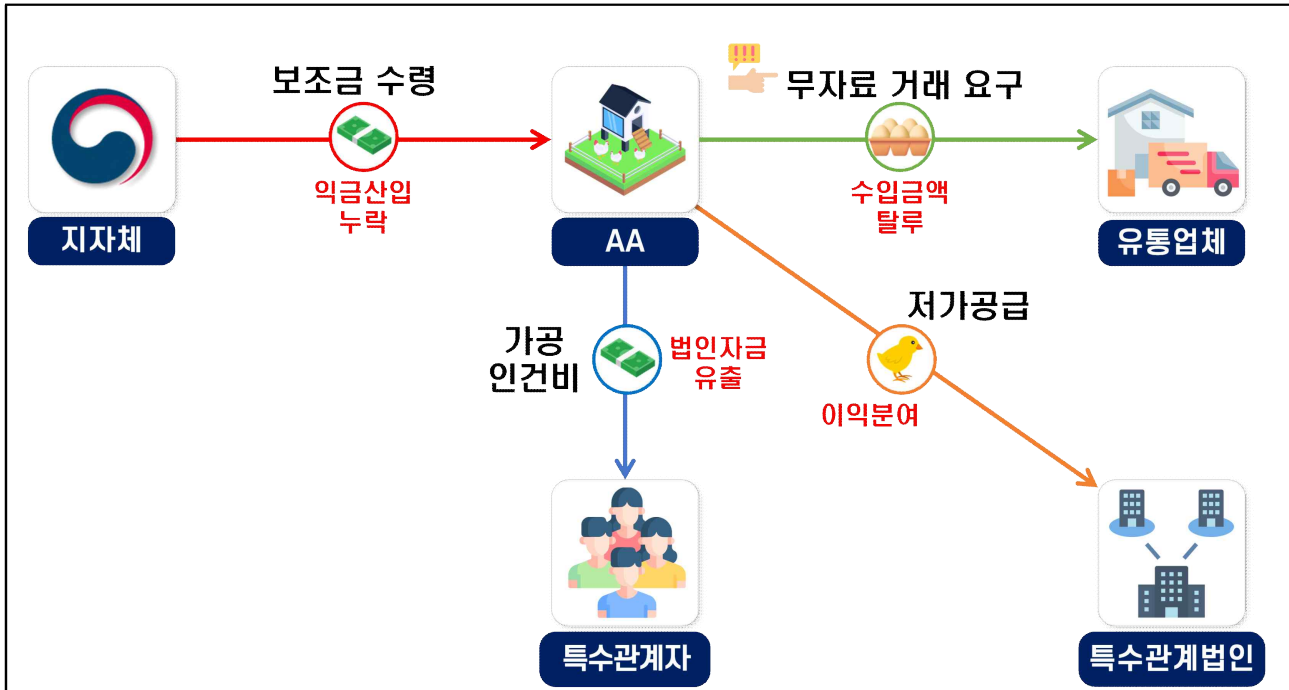
- 그간의 ‘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’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,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.

- 재료비·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,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,
 -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,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탈루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장성기 (044-204-3601)
		담당자	사무관	손태빈 (044-204-3602)
		담당자	서기관	주인규 (044-204-3612)
		담당자	사무관	김치호 (044-204-3617)
<협조>	조사1과	책임자	과 장	구성진 (044-204-3551)
		담당자	사무관	최일암 (044-204-3552)
<협조>	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44-204-3651)
		담당자	사무관	조흥기 (044-204-3652)

사례 1
[계란]

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강요하고,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
분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양계 농장



□ 주요 탈루혐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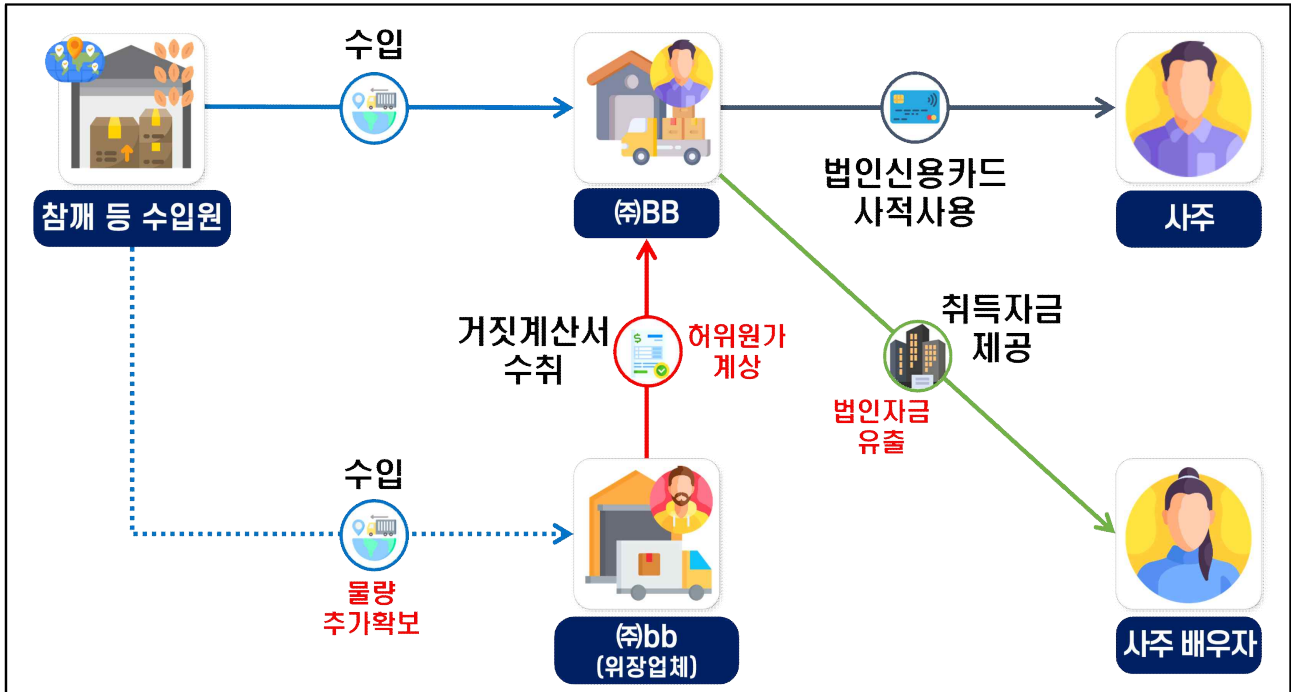
- 계란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조합법인 AA는 특정 거래처에 계란 판매 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00억 원의 수입 금액을 탈루하고,
 -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,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0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
 - 또한, 특수관계법인들에 병아리를 저가로 공급해 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고,
 -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0억 원에 대한 익금산입을 누락하여 법인 소득을 과소신고

□ 조사방향

- AA의 무자료 매출에 따른 수익 은닉 및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등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여 과소 신고분 추정

사례 2
[농축산물]

**위장 업체를 내세워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할당관세 혜택을
사의 추구에 악용한 농산물 수입업체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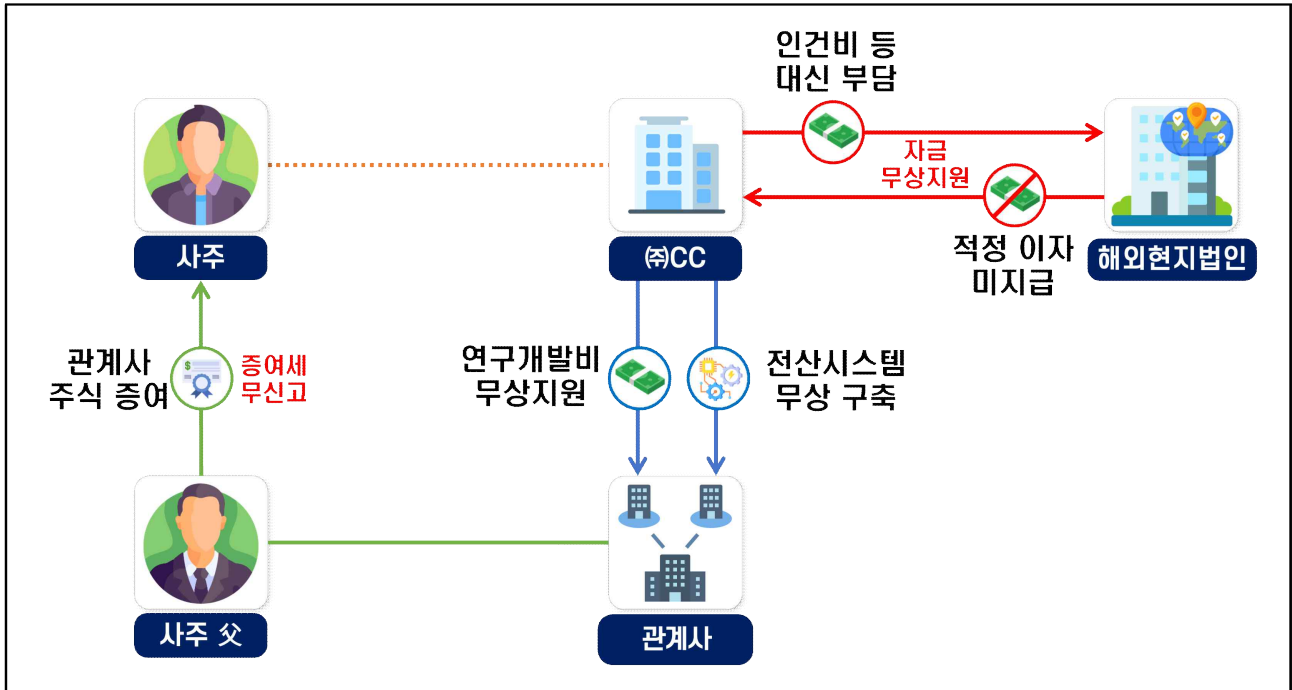
□ **주요 탈루혐의**

- (주)BB는 참깨, 들깨 등 곡물을 수입하는 업체로, 사업 능력 없는 대표자(외국인) 1인 사업장 (주)bb로부터도 곡물을 매입
 - (주)BB는 대표적인 고율관세 품목인 참깨*의 저율관세할당(TRQ) 물량을 (주)bb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면서, (주)BB에 귀속되어야 할 매출을 (주)bb로 분산
 - * 참깨 최고 관세율은 630%이나 저율관세율은 40%
 - 그 외에 (주)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참깨 등을 00억 원 매입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한편,
 - 사주가 해외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0억 원을 부당하게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고, 배우자는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아파트 취득

□ **조사방향**

- (주)BB의 법인세 탈루혐의 및 거짓계산서 수취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고 필요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분

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소득을 국외 유출한 종합식품 기업



□ 주요 탈루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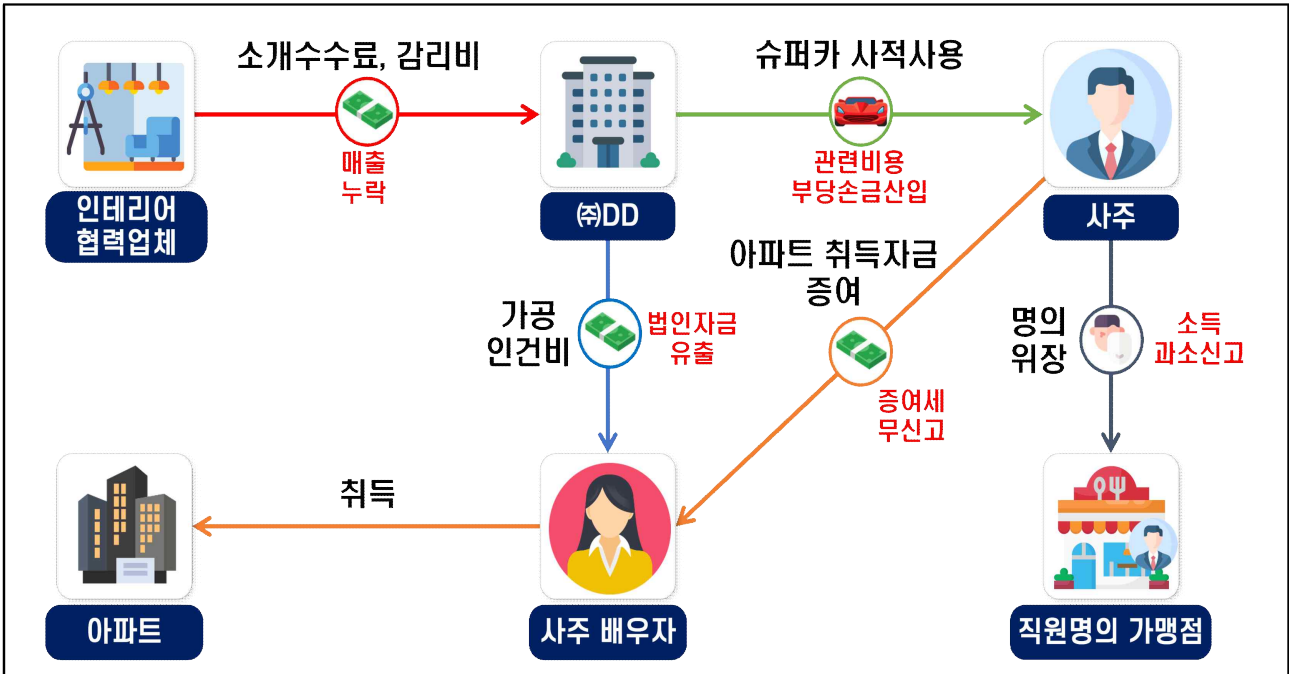
- (주)CC는 식품제조, 수산 등 종합식품 기업으로, 고유가, 고환율 등의 사유로 최근 제품가격을 인상
- (주)CC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00억 원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, 000억 원의 자금을 이유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고도 이자 00억 원을 미수취
 - 이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며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면서도 판매 중인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은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
- 또한, (주)CC는 국내 관계사의 연구개발비,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부당 지원하고,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증여 받았음에도 증여세 무신고

□ 조사방향

- (주)CC의 해외현지법인 및 국내 관계사에 부당 지원한 자금의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, 사주의 관계사 주식 수증액에 대한 증여세 추정

사례 4
[프랜차이즈]

리베이트 매출을 누락하고, 차명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



□ 주요 탈루혐의

- (주)DD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, 인건비, 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꾸준히 인상
- (주)DD는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,
 - 법인 명의로 취득한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,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
 - 사주는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(직원명의) 가맹점을 운영하면서, 해당 가맹점의 매출원가를 타 가맹점 평균대비 00% 이상 부풀려 소득금액을 과소신고
 - 사주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사주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무신고

□ 조사방향

- (주)DD 매출누락 및 사주일가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차명 가맹점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